

기술이전
우수사례집

기술이전으로
기업 경쟁력과 매출이 싹싹

**기술보증기금이
함께 합니다**

- 업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주요사업** 클라우드(가상화)솔루션 개발 및 공급, 스마트공장, 스마트오피스 구축
- 설립연도** 2010년
- 대표이사** 김병섭
- 근로자 수** 24명
- 소재지** 서울 강남구 역삼로 138 동광빌딩 501호

(주)유플렉스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로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데스크톱 가상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 아이템 핵심 기술 개발의 어려움과 외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에서 발생하는 고가의 라이선스 비용 등으로 제품 개발에 실패하며 위기를 맞았으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받아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공동 연구를 통한 신기술이전을 거듭하며 제품 사양을 높였으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서울 Rising-star 기업' 등으로 선정되었고, 기술이전을 통해 개발한 가상화 데스크톱 솔루션 제품이 GS(Good Software) 1등급을 획득했다.

(주)유플렉스소프트





구조조정의 위기, 기술보증기금 만나 기회로 바꾸다



(주)유플렉스소프트의 기술이전 현황

년도	이전 기술	협력처	투자금	현황	사업화 기간
2015	이동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가상 데스크톱 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억 원 *기술료 1.2억 원	판매 중	1년
2017	고속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인메모리 가상 데스크톱 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억 원 *기술료 8천만 원	개발 중	1년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믿고 결행한 퇴사 그리고 창업

(주)유플렉스소프트의 김병섭 대표이사는 20여 년간 '삼성맨'으로 그룹 내 보안 및 인프라 관리 솔루션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자로서의 갈증이 느껴졌다. 회사에서 만드는 솔루션은 대부분 그룹 내부 조직 관리가 목적이었기에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다. 하나의 기업을 넘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소위 '벤처 정신'은 결국 김병섭 대표이사의 길었던 회사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했다.

“PC의 시대는 끝났다. 디지털 삶의 중심은 ‘클라우드’가 될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에요. 세계 시장에는 이미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죠. 제게는 관련 분야에 관한 오랜 지식과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클라우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VDI는 기존의 PC 환경에서 작업하던 정보를 가상의 중앙 서버로 이전하여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장소가 어디든 디바이스가 무엇이든 중앙 서버에 로그인만 하면 바로 ‘내 컴퓨터’ 환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이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오피스, 스마트교실 등이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주)유플렉스소프트의 김병섭 대표이사는 창업의 첫 단계인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찾아간 기술보증기금에서 사업 아이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더욱 커졌다. 상담을 진행한 담당자가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며 ‘R&D 기획 전략 컨설팅’까지 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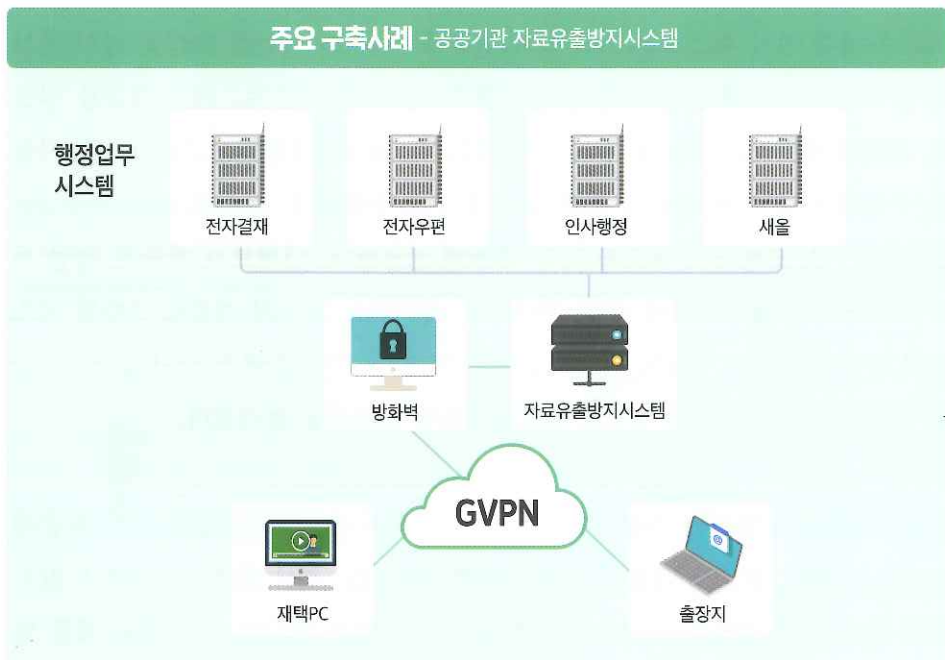
“마침 기보 담당자도 클라우드 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잠재성이 높은 분야이니 IT 강국인 한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응원도 많이 해 줬어요. 따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이 분야의 동향과 자금 마련방안, 마케팅 전략 등, 100여 페이지가 넘는 컨설팅 기획서를 작성해줬을 땐 정말 감동했죠. 모든 게 서둘렀던 사업 초기에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벤처 정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벤처기업

그렇게 야심 차게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역시나 시장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클라우드 기반의 VDI 사업화를 위해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섰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 이제 막 시작하는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에는 인력과 자금, 시간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일이었다. (주)유플렉스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했지만, 끝내 사업화에는 실패했다. 너무 높은 라이선스 비용 때문에 제품 가격이 상승했고, 판매가 많이 될수록 이윤은 커녕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몇 번의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회사 사정은 어려워졌다. 결국 2015년에는 구조조정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서른다섯 명이었던 직원을 열세 명으로 줄이는 뼈아픈 실패를 겪으면서 김병섭 대표이사는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 '외국산 기술은 안 된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과 '모든 걸 우리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받자.'는 것이었다.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며 (주)유플렉스소프트가 다시 손을 내민 곳이 바로 '기술보증기금'이었다.





해외에 대응할 국산 제품 개발을 약속

창업 초기부터 'R&D 기획 전략 컨설팅'을 받는 등 사업 진로에 대한 상담을 받았던 김병섭 대표이사는, 이후에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 설명회 등에 참석하면서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기술 가운데, (주)유플렉스소프트 사업의 핵심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보 담당자의 소개로 김병섭 대표이사는 한걸음에 연구소를 방문했다. 연구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기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기술이 완성된 후 김병섭 대표이사는 곧바로 이전 작업에 들어갔다.

“국가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엄청난 연구비를 들여 완성한 훌륭한 기술들이 많다는 걸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알게 됐어요. 물론 잡자고 있던 기술을 가져와 상용화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기술보증기금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위상도 높이고 해외에 나가 외화 벌이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꼭 성공시켜 달라고, 그것이 애국하는 일 아니겠느냐고요. 그 말에 큰 힘을 얻었어요. 제가 처음 회사를 차린 것도 바로 그 이유였으니까요.”

(주)유플렉스소프트는 2015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동형 클라우드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가상 데스크톱 기술'을 이전받아 1년간의 사업화 기간을 거쳐 가상화 솔루션 소프트웨어 첫 제품을 출시했다. 양측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주)유플렉스소프트는 첫 번째 기술이전 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또 다른 기술에 관한 공동 연구도 진행했다. 그리고 공동 연구 2년 만인 2017년, 고성능 '인메모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인메모리 기술은,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메모리에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고도의 기술로 그만큼 시스템의 용량을 줄이고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주)유플렉스소프트는 이 기술도 이전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기술보증기금 담당자는 기술이전 후에도 설명회와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 꾸준히 보내주고 있다. 김병섭 대표이사 역시 바쁜 와중에도 최신 정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련 기술 설명회는 시간을 내어 참석하고 있는 편이다. 최근에도 제품 업

그레이드에 필요한 기술 하나를 점찍어 두고 왔다면, 빠르면 내년쯤 다시 한번 기술이전을 받을 계획이라고 귀땀한다.

“사업을 확장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선 위험부담도 크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걱정 없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만 있다고 사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사업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김병섭 대표이사는 사업화에 들어가는 자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적기에 융통 받았다. 그래서 준비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고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사실 금융권에서 여러 번 대출 거절을 당했거든요.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재무제표가 아닌 회사의 기술과 미래 가치를 평가해서 그만큼의 자금 융통을 증개해 줍니다. 유망한 중소기업이 새싹에서 나무가 될 때까지 꾸준히 물을 주는 거죠.”



미래 클라우드 세상의 선두를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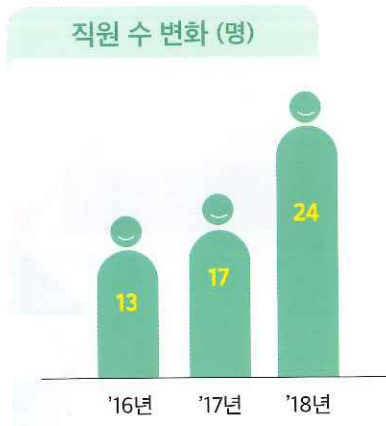
(주)유플렉스소프트에서 오랜 노력 끝에 완성해 내놓은 ‘올인원 DV 5.0(데스크톱 가상화)’, ‘윌홀 AV V2.0(애플리케이션 가상화)’, DC V3.0(문서 중앙화) 등의 클라우드 솔루션 제품들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여러 정부 기관을 비롯해 기업체, 대학교 등 20여 곳에서 (주)유플렉스소프트의 프로그램으로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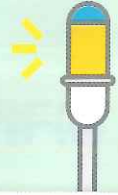
마트'한 오피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이 분야의 전망이 매우 밝고 확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기업과 기관들의 근무환경 관리 뿐 아니라, 2018년부터 의무화된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초·중·고의 스마트교실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유플렉스소프트는 또 다른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년과 진도가 다른 많은 학생의 정보를 한 번에 빠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은, 현재로서는 클라우드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호조에 힘입어 (주)유플렉스소프트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이는 매출액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에 38억 원이었던 매출은 2017년에는 45억 원에 이르렀고 2018년은 54억 원가량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절반 넘게 줄어들었던 직원도 스물네 명으로 다시 채워졌다. 김병섭 대표이사를 위시한 (주)유플렉스소프트의 직원들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앞으로 열릴 광활한 클라우드 세상에 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복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알 수 없는 파도를 서핑하듯 잘 타고 넘어야 '시장'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를 위협할 파도가 분명히 또 닥치겠지만,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밀어주고 끌어주는 든든한 원군이 있고, 우리 직원들의 실력과 열정이 있으니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파도가 다가올지 무척 기대됩니다.”



(주)유플렉스소프트의 기술이전 성공 분석



경험과 노하우는 탄탄한 성공의 큰 자산이 된다

관련 분야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 성장의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갈 수 있는 훌륭한 거름이 된다. 우리 회사의 경우 세미나와 기술 설명회 참석,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클라우드 기술'의 시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가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도 해당 기술에 관한 지식 인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적기에 자금 융통을 받았다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 개발의 종착점에 다다를 수 없다. 개발 기간이 늦어져 시장 진입의 타이밍도 놓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유 기술에 대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고 적기에 자금 지원을 해주었기에 실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주)유플렉스소프트의 S.W.O.T

강점 Strengths 대기업에서의 오랜 대규모 시스템 구축 경험과 R&D 및 기술이전을 통한 고성능 제품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다. 10년 이상 가상화 기반 제품을 개발하며 정부 부처 등의 확실한 고객층을 유지하고 있다.

약점 Weakness 우수한 개발자와 사업화 자금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관건. 또한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 소극적인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분위기 속에서 인지도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회 Opportunities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고성능 인메모리 기반 기술의 제품을 갖춰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높으며, 국내 시장 역시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위협 Threats 유사 솔루션 기업들의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고성능 기술 제품의 확대로 제품 단가 하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우수사례집

기술이전으로
기업 경쟁력과 매출이 쑥쑥

**기술보증기금이
함께 합니다**

발 행 일 2018년 12월

발 행 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8층)

취재 및 제작 초이스컴(주) TEL. 070-4245-9599